

철회할 수 없는 부르심

-댄 저스터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 롬 11:28-29.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에게는 철회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책 <철회할 수 없는 부르심>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보존과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에 있어 그분의 궁극적 주권을 증거하는 큰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증거는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념하며, 마지막 때와 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오는 세상을 전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으로 이끌며, 모든 민족이 오는 세상에서 각자의 속명에 이를 것을 전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추수인 **샤부울** (오순절)은 1세기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 땅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 것을 전조하는 것입니다 (사 11:9).

욘 테루아/나팔절 (쇼파롤)은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리고 통치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것 (사 27장)과 죽은 자들의 부활 (살전 4:16-17)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욘 키푸르/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대속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야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히 9장). 이 대속은 아직 민족적으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 적용될 것입니다 (속 12:10, 계 22:2).

장막절/수장절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메시아 아래 하나가 될 하나님 왕국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속 14:9).

예수야의 유대인 제자들은 그 백성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그가 토라를 준수한다는 것과 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행 21장).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들은 예수야의 유대인 제자들이 이스라엘과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부분 둘 다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 공동체들 안에는 유대인들과 동일시하는 것과 유대적인 것에 근거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삶은 공동체적이며 개인적으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유대 문화를 긍정하며, 이러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예수야의 유대인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 받은 남은 자들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몸의 유대인 지체들, 즉 한 새 사람의 유대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공동의 연계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몸의 지체가 되어 다시 자신들의 원래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롬 11:15).

모든 신자들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택함 받은 자들이고, 대체되지 않았으며, 유대인 신자들은 아직도 이 중요한 부르심의 일부라는 것을 긍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메시아 아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충돌: 누가 유대인의 왕인가?



최근 이스라엘 선거까지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립 정부 구성 과정에 있어 똑같이 혹은 더 긴급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정부 구성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1. 선거 – 누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인가?
2. 연립 – 누가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대속—죄 사함—이라는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한 큰 다툼은 또 다른 쟁점, 즉 그가 정말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인가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요 18장). 오늘날 이스라엘 총리는 지상에서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지만, 완전히 메시아적이고 신성한 걸음을 명백하게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로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슈도 비슷하게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되었기에, 이 리더십의 자리도 다시 생겼고, 또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하고 공격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놓고 벌이는 영적 전쟁은 연립을 구성하기 위한 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립하지 않고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고, 정당 리더들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연립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쟁점이 오늘날 전세계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아께서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뽑히셨습니다 (시 2장). 그러나 예수아의 제자들 안에는 그분의 왕국이 기능하며 전진하기에 충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 17장).

아세르의 메시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것

-코디 아처



지난 한 달 동안 이곳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 저희는 전 세계로부터 쇄도하는 손님들을 맞고 섬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매주 기도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며,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이들과 관계를 맺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겸손해지는 계기였고, 때로는 심지어 압도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한 가지는 사역의 현지 부분과 국제적 부분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에만 집중하면 훨씬 간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이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주에 미국에서 오신 한 무리의 교회 장로들(이들의 담임 목회자가 함께 동역할 현지 신자들을 찾아 '이 땅을 정탐'하도록 이들을 이스라엘로 보냄)과의 모임에서, 이들은 저희와 함께 한 시간이 여행의 백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점 많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한 새 사람'의 연합과 동역 관계는 이 시대에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